

# 2022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지급심사위원회 1차 회의록

□ 일 시 : 2022.5.23.(월) 16:30~18:00

□ 장 소 :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

□ 안 건

1. 대학회계직원 교연비 지급에 대한 설명(대학노조)
2. 2022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지급 기준(안) 심의
3. 교연비 비용지급 실무심사위원회 구성 변경 심의

□ 참석자 : 심사위원회 위원 13명 중 8명 참석

- 위원장 - 연구부총장 조기환
- 위 원 - 교무처장 양규혁, 학생처장 김남수, 기획처장 정용채, 공무원노조회장 김용우, 총학생회 김 진, 총학생회 박현규
- 간 사 - 기획예산부처장 이상노

□ 회의 내용

위원장 (개회선언) 8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설명

간사 지난 2021학년도 12차 회의결과 설명

- 2021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수정계획서 심사 및 잔여금 지급(안) 확정
- 2021학년도 연구 및 산학협력영역(선택항목) 잔여금 지급(안)

위원들 2021학년도 12차 회의결과에 대해 확인함

간사 1차 회의 1호 안건 대학회계직원 교연비 지급에 대한 설명을 대학 노조에 요청

대학  
노조 1차 회의 1호 안건 대학회계직원 교연비 지급에 대한 설명

위원장 심의를 꼭 해야 되는지 질문

- 간사 의견에 대해서 심의를 할지 안할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답변
- 위원장 공무원 중에 한시적임기제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
- 위원5 공무원이 휴직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결원 기간 동안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답변
- 위원7 대학노조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려면 11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
- 위원3 현재 교육부에서 추가적인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고 답변
- 위원7 이 안건은 이전부터 얘기되어 왔었고, 앞으로도 언급될 텐데 교육부에서 추가적인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다면 기획처는 이 안건에 대해서 준비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 간사 고통분담 차원에서 재작년에 대학회계직원, 공무원 금액을 나눠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투표를 했지만 반대의견이 있어서 추진이 불가능했다고 답변  
현재 금액 600만원을 낮춰서 시도해보려고는 하나 집행부가 마지막 임기기 때문에 올해 추진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차기 집행부에서 다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
- 위원7 공직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논의해보겠다고 답변
- 위원5 한시임기제 공무원은 지급을 제외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 위원7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지급하는 것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회의가 끝난 후에 검토해보겠다고 답변
- 위원5 한시임기제 공무원은 이번 회의에서 지급을 제외하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
- 위원7 한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인원, 상황 등이 파악이 안되서, 당장 결정하기는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뒤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 위원1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에서는 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
- 위원7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지급제외해도 대학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
- 위원장 대학노조에서 다른 질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
- 대학 대학회계직이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한 분의 예산만큼은 확보되어있다고 생각하는게 맞는지에 대해서 질문

- 노조      대학회계직은 총 100명 정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퇴직하고 52명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약48명 가량의 받으셨던 분들을 대체해서 들어온 대학회계직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 위원5      우리 대학의 규정을 보면 구 기성회계직(정규직)의 TO가 있고 그 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그 TO는 자연 감소되고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어 학교 측은 신분이 변동되었다고 본다고 답변
- 구 기성회계직(정규직)은 왜 증가될 수가 없나면 과거에 재정회계법이 내려올 때 단서조항에 구 기성회계직에 대한 위임금지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변
- 그래서 대학들이 통상적으로 받았던 사람은 계속 주는 것으로 이어져 내려오는데 지적하신대로 받았던 TO자체에 새로 뽑았는데 왜 안주냐? 라는 물음에는 새로 뽑은 대학회계직원 은 구 기성회계직원 신분이 아니기 때 이라고 답변
- 말씀드리는데 내용은 타당성을 떠나서 형식 논리적으로는 이러한 상황이고 쉽게 말하면 새로 뽑은 대학회계직원은 구 기성회계직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답변
- 위원장      추가적인 의견이 있냐고 물음
- 위원들      없다고 답변
- 간사      **1차 회의 2호 안건 2022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지급 기준(안) 심 의건에 대해 설명**
- 위원7      작년에 공문을 보면 지급기준 의견수렴을 작년 3월 달에 공문을 모든 부 서 및 단체에 보내서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었는데 올해에는 지급기준 의견수렴을 5월 달에 받았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지 표가 안나오다보니 작년의 지급기준을 기준으로 활동을 하였다는 의견
- 구성원들을 조사하다보니 상당수 직원들이 멘토링, 학생지도 관련해서 이 미 진행하였는데 이번에 기획처에서 지급기준(안) 지표에서 삭제되는 것 이 많은데 이러한 지표들은 기획처에서 인정하지 않겠다고 인식을 하고 있다고 설명
- 직원들도 해당사항이기 때문에 전체공문을 보냈으면 이런 혼선이 안 일 어났는데 올해에는 직능단체에만 의견수렴 공문을 보내서 구성원들의 의 견수렴이 원활하지 못했고 협업부서인 학생과, 취업지원과에서도 전혀 이 상황을 모르고 있다고 설명
- 따라서 올해에는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지표를 해

야 한다는 의견

만약 현재 2022학년도 지급기준(안)대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

위원장 의견 수렴이 안 되었다는 의견에 대해서 질문

위원7 작년에는 모든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3월 달에 의견수렴을 했었고 올해 지급기준(안)은 학생지도지표가 14개 지표에서 2개 지표로 변경되었지만 사라지는 지표 중 3~4개를 이미 직원들이 활동을 하였다고 설명

간사 22학년도 교연비 지급기준(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연비 활동을 하지 말라고 안내를 했었고, 작년에는 의견수렴을 3월에 했는데 올해에는 5월에 한 이유는 올해부터 교연비 심사위원회에 학생 30%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산대학교에서 다시 검토를 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을 하였는데 이 때문에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이 5월 중반에서야 나왔기 때문이라고 답변

위원7 21학년도 교연비 지급기준과 똑같이 지표를 설정하지 말라는 교육부 지침이 내려왔냐는 질문

4월 5일 날 의견수렴공문에는 14개지표가 그대로 명시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활동을 하였고 지급지연이라는 공문이 왔는데 여기에는 지표변경이 되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서 구성원이 전혀 이 사안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설명

위원3 기획처에서는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획처에서 내놓는 것은 하나의 안일뿐이고 매년 교육부와 협상에 의해서 확정되는데 교육부 자체에서도 업무프로세스가 늦었다고 설명

그리고 가이드라인에 학생을 포함시키는 것 때문에 거점국립대협의회 및 교수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교육부와 협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는 아직까지도 회의를 개최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지만 교연비 지급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상황에서 구성원들의 경제적 필요성 및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우리가 안 따른다고 해서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고 느껴져서 학생위원들을 모시고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설명

위원5 우리가 지급기준(안)에서 지표를 삭제하면 교육부에서는 다시 살려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표 삭제는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

현재(안)에서 학생 멘토링은 수급이 안 맞을 가능성이 높고 1인당 신입생 2명씩은 해야 되는데 직원이 350명 정도이면 신입생 700명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인원이 안 나왔을 때 문제가 있다는 의견

외국인 멘토링도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

학생 동아리 등 다른 지표를 제외할 때는 명백한 근거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개인멘토링보다는 동아리멘토링이 효과가 좋다는 의견

학생지도관련 행사참여를 제외했는데 학생처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퇴근 시간에 나와서 질서유지 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다만 금액이나 시간은 철저히 한다는 전제라는 의견

취업면접지도를 할 때에는 성실히 면접지도를 하였고, 직원들은 공무원 면접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코멘트해주는 부분이 상당하고 지금은 온라인으로 했지만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 녹화를 한다면 확실한 증빙도 되고 학생들에게 도움도 된다는 의견

실적을 잘 관리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전체 지표중 13개를 없애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이 중에서 학생들에게 의미가 있고 직원들도 취사선택이 가능한 여러 개를 열어놔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

위원장 올해 계획이 늦었다는 것은 처장님, 부처장님이 충분히 설명하였고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질문

간사 의견수렴은 공문을 보내서 진행하였는데 의견이 기간 안에 들어오지 않고 기간이후에 들어왔고 회의 자료에 공무원노조와 대학노조 의견수렴 공문을 첨부하였다고 설명

위원장 이것은 의견이 아니고 공문이고 어떤 의견을 제출했고 취합할 것인지 버릴 것인지 논의해야한다는 의견

위원7 의견수렴을 직능단체에서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 주관부서에 의견수렴을 해줘야지 공무원 노조에서는 교연비 의견수렴 권한이 없다는 의견  
그리고 공무원 노조에는 상근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의견수렴이 지난 시점에서라도 공문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견

위원장 요약하면 공무원노조에서는 의견수렴을 할 체계가 안 갖춰져 있고 따라서 대학본부에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

위원7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의견수렴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

위원3 그러면 향후에 공무원 노조는 직능단체로서의 대표성을 인정안해도 되느냐는 질문

위원7 그런 의미는 아니고 작년에는 모든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였고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4월 달에 보낸 의견수렴 공문에는 15개 지표가 그대로 살아있었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올해는 지표변경이 없다 생각하고 활동을 했다는 의견

- 위원장 학교에서 행정은 담당부서에서 공문을 보내서 시행하는 순간부터 실행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  
 그것을 의견수렴공문만 보고 활동을 했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내용이고 이렇게 중요한 것은 노조에서 의견 수렴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  
 기획처에서는 의견수렴을 충분히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질문
- 간사 의견수렴을 해달라고 충분히 의견을 보냈고,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공문으로 와야하고 2주간 의견수렴 기간을 가졌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 기회는 드렸다는 의견  
 큰 이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반성을 하는데 형식적·절차적 문제는 없었다는 의견
- 위원5 지금 직원들이 이 사안을 모른다는 이야기고 그럼 이 사안을 직원들에게 알려주는 책무는 누구에게 있느냐의 문제라고 설명  
 노동조합이 이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 어렵고 행정적인 처리는 학교 정식라인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게 맞다는 의견  
 현실적으로 의견수렴을 했냐는 것을 떠나서 직원들이 이 사안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두 가지 지표만 나가면 상당히 당황할 것이라는 의견
- 위원1 기획처에서 지표를 꼭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 간사 교연비 지표가 많은 경우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서 올해에는 실무심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활동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체크하도록 변경하였다고 설명  
 만약 정확하게 체크가 안되었을 경우 교연비 전체 예산의 5%(11억)를 삭감하게 되는데 삭감되었을 때 교수회나 직원협의회가 책임을 지나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문제 대두가 예상이 되어서 지표를 단순화 시켜서 줄였다고 설명  
 지표 관리가 잘 되고 철저히 행사지도 등 활동을 하면 좋지만 현재는 정확하게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어 두 가지 지표로 줄여놓은 상태라고 설명
- 위원5 타 대학 사례도 참고가 될 것 같은데 물론 위험성도 줄이는 것이 맞지만 지표가 실질적으로 학생 멘토링 하나밖에 없는 수준인데 이것은 너희가 일탈 할 수 있는 전제하에 한 가지만 활동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직원들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받는 느낌이라는 의견  
 지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타 대학의 사례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참고한다면 좋을 것이고 15개 지표는 많다고 생각하지만 2개 지표로만 운용을 하면 선택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의견

만약 신입생이 멘토링을 거부하면 직원들이 기획조차도 없기 때문에 다른 지표를 조금 추가하되 비용을 조정할 수도 있고 멘토링을 한 학생만 20번 만나라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라는 의견

기획처와 공무원 노조에서 절충안을 만들어서 내놓으면 좋겠다는 의견

위원3 멘토의 의미를 너무 축소해서 생각하지 않고 취업이라든지 폭넓게 확장해서 생각해야지 어느 한쪽분야로만 해놓으면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만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의견

또 직원들은 학생들을 잘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혁신지원사업에서 정원조정을 할 때 꼭 나오는 지표가 학생 유치·충원율인데 멘토를 통해 신입생들이 중도에 그만두지 않고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멘토해야한다는 의견

위원7 기획과에서 추진하는 지표 개선안은 직원들이 학생 멘티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구성원들에게 지표가 공지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의견

작년에 안 좋은 사례가 있지만 작년과 같은 일이 동일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공무원 노조 차원에서 수시로 요청할 것이며 지표 15개 중에서 불필요한 지표는 삭제가 가능하다는 의견

위원2 언제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되냐는 의견

위원3 다른 대학은 이미 제출을 하였고 우리 대학이 늦은 편에 속하고 그동안 학생위원들의 참여문제 등의 문제로 지체된 상태였으며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다고 답변

위원장 학생위원 두 분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달라는 요청

위원11 변경된 기준안에 어떻게 학생의견이 반영이 되었는지 궁금하고 바뀐 지표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봐야 한다는 의견

간사 학생의견 수렴을 위해서 총학생회 공문을 송부하였고 의견이 접수가 안 되어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답변

위원8 개인적으로 취업관련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학원을 가는 것보다 교수님, 조교, 교내 교직원 분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었고 국장님의 말씀에 동의한다는 의견

지급기준 삭제에 관해서는 필요한 것들도 너무 단축되었다고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만약 현재 지급기준(안)대로 하게 된다면 멘토링안에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방향정도를 제시해주는게 학생들한테도 효율적일

것 같고 나중에 이것을 검토하게 된다면 학생회 의견도 받으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의견

위원2 학생과에서 교연비 지급기준(안) 관련해서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학생처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교연비 관련 업무는 취업지원과에서 했는데 학생을 관리하는 학생과에서 하니까 멘토링 배정 및 교연비 업무를 학생과에서 하라고 하니 학생처는 입장이 난처하고 이런 부분들을 변경하려면 TF팀이라도 만들어서 협의를 요청한다는 의견

그리고 학생처에서는 학생행사와 취업 관련한 멘토링 참여를 부탁드렸을 때는 교연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추진을 하였는데 이제 와서는 학생지도활동 지표로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하니 학생처는 당황스럽고 지표를 더 유연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의견

위원3 구성원들이 원한다면 1~2주 정도 의견수렴을 더 하여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

작년에 교연비 감사 관련 후속조치에 너무 많은 노력이 들었고 같은 거 점국립대에 좋은 제도가 있어서 받아들이려고 한 것이라는 의견

위원장 오늘 심의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일주일정도 구성원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한 뒤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

위원5 공무원노조에 제안하는 것은 지금 본부입장에서 제일 염려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운영을 했을 때 5%감액인 부분인데 예산이 교수님들과 직원들이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직원 쪽에서 적발이 되어 5%삭감을 했을 때 직원예산 부분만 5%삭감을 할 수 있겠냐는 질문

이런 조건이라면 집행부에서도 안심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

위원7 작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필터링 할 수 있는 기구를 자체적으로 만들고 동일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

위원5 교수직군과 직원직군의 예산이 사실상 나누어져 있는데 직원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패널티를 받으면 그 패널티 부분의 몫을 교수님들은 직원부분에서 줄이라고 할 텐데 직원 쪽에서는 수용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 기획처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편할 것 같다는 의견

위원7 여기서의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

위원5 공무원노조에서 의견수렴 중에 숙고를 해서 그 정도 보강까지는 있어야 본부에서 설령 일부 이탈자가 있어도 직원 분들을 믿고 운영할 수 있고 반면에 교수님들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쪽 예산만 삭감하면 되는 거니까 안이 아니라고 해도 회의에서 불임의견으로 달면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생기면 예산부분에서는 그 직군이 책임을 진다 그런 부

- 분의 역제안도 필요하다는 의견
- 위원장 일주일정도 구성원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한 뒤 다시 논의하자고 의견
- 위원들 동의함
- 간사 **1차 회의 3호 안전 교연비 비용지급 실무심사위원회 구성 변경 심의건에 대해 설명**
- 위원장 실무심사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질문
- 간사 교연비 심사위원회에서 교연비 활동을 일일이 검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위탁받은 상태이고 단과대학, 총무과 등 각 부서에서 설치되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실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책임을 지는 곳이라고 답변
-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철두철미하게 심사해서 올라오면 총괄심사위원회에서는 형식적 요건과 실무심사위원회가 제대로 심사를 했는지를 평가한다고 답변
- 위원3 이 조직은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이고 관건은 3개영역을 따로따로 둘 것이냐 아니면 통합적으로 하나의 실무위원회에서 할것이나와 종전에는 의례적으로 했던 반면에 이제는 검증적인 측면에서 확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설명
- 위원장 이런 확인 작업을 위원회에서 할 수 있냐는 질문
- 위원1 이런 경우 대부분은 주무부서 담당자가 해가지고 안을 내놔야지 위원들이 일일이 할 수가 없다는 의견
- 위원3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3개의 영역으로 교육, 연구, 학생지도 3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총체적으로 한군데에서 할거이나라는 쟁점이 있다고 설명
- 그리고 학생지도는 직원인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교수의 경우에는 각 단대 행정실에서 담당하였다고 설명
- 위원2 근데 여기서 바꾼 것을 보면 사무국에서 다시 학생처로 바꾸면 학생처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의견
- 위원3 교연비 심사를 강화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우리 학교에서 비용을 받는 만큼 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
- 위원장 행정부서에서 한 실무를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느냐는 질문
- 간사 위원회에서 실무업무를 관리 감독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

- 위원장 위원회는 결정하는 곳이지 관리 감독하는 곳이 아니라는 의견  
만약 위원회가 관리감독을 한다면 큰 무리가 없냐는 질문
- 위원5 행정책임은 업무부서에서 지는 게 맞고 시스템적으로 체크를 다 해보고  
실무위원회에 안건을 올렸을 때 실무위원회는 그것을 보고 점검이 끝났  
다고 판단하는 역할을 하며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도 실무위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업무부서에 책임을 묻거라고 설명
- 위원1 실무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만 보고를 듣고  
결정을 하며 교연비 관리는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해야 되는데 단과대학  
의 교연비 업무를 학생과나 학사관리과로 가져왔을 때 업무양이 보통이  
아니라는 의견
- 위원3 작년에도 학사관리과가 교육, 연구진흥부가 연구, 취업지원과가 학생지도  
를 담당했다고 설명
- 위원1 단과대학에서 올라온 것을 취합하는 업무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  
문
- 위원5 실적관리물을 모아서 실무위원회 몇분이 한번 더 스크림을 한다는 이야  
기인지 질문
- 위원7 교수님들 서류검토에 단과대학에서도 업무가 상당히 걸리는데 그런데 이  
렇게 한군데로 몰리면 충분하게 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
- 위원3 영역별 관리부서에서 힘든 것은 아는데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안 따를 수  
가 없고 이런 문제를 예견해서 작년에 교수님들은 통합학술트랙으로 가  
서 일을 대폭 줄이려고 했는데 투표결과 반대가 되어서 무산이 되었다고  
설명
- 위원2 학생지도같은 경우 교수는 단과대학 직원은 총무과, 조교는 교무과, 단과  
대학 등에서 올라와 취업지원과에서 취합을 하는데 직원이 없는 상태에  
서 단순 취합이 아닌 실무를 하라고 하면 업무 지체가 된다는 의견
- 간사 그래서 타 대학들은 상당히 큰 규모로 교연비 전문으로 담당하는 팀이나  
부서가 있다고 설명
- 위원5 조직을 개편해서 교연비 담당 팀을 만드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
- 위원3 이렇게 하려면 사무국에서 하나의 팀을 만들어줘야되고 저절로 인원이  
순증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각 부처에서 인원 차출에 대해서 동의를 해  
야 한다고 설명
- 위원5 검토가 필요 한다는 의견
- 위원2 이 업무를 교무처나 학생처에서 아무데서나 해도 상관없지만 그 업무를

- 할 수 있는 사람을 추가로 배치해줘야 된다는 의견
- 위원장 안전3도 오늘 처리하지 않겠다고 설명
- 위원들 동의함
- 위원장 기획처에서 재검토 후 안전을 올려달라는 의견
- 간사 위원장님께 정리말씀을 부탁
- 위원장 안전1은 심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 한 것으로 끝내고, 안전2, 안전3  
은 다음 교육연구 학생지도 비용지급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

2022.5.23.

[기록자 : 행정주사보 김선웅]